

■ 연세대 김우식 총장

“IT, BT, NT, CT 등 4개 분야 집중 육성”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9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 연세대 총장실

■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조화와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는 물론 실제 산업에로의 응용에 있어서 이들의 조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큰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늘 마차의 양 바뀌처럼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견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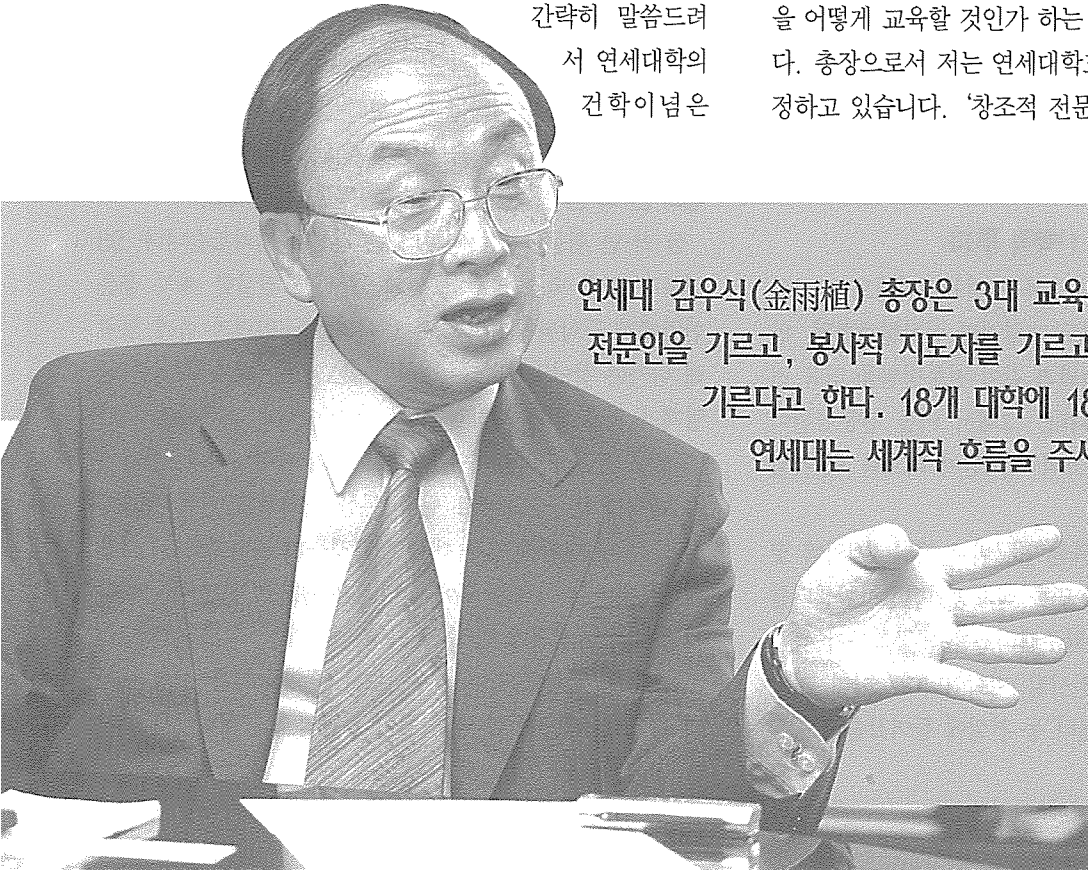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기본 운영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며 연세대학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와 자유인데 진리에는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만 우선 정직하며,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생각하는 자세로 ‘참’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와 질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와 질서가 이루어질 때 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자유정진에 매진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 실천해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전문인·봉사적 지도자 육성

연세대학교는 이와 같은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목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연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세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전문인을 기른다, 봉사적 지도자



연세대 김우식(金雨植) 총장은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창조적 전문인을 기르고, 봉사적 지도자를 기르고, 열린 마음의 연세인을 기른다고 한다. 18개 대학에 18개 대학원을 두고 있는 연세대는 세계적 흐름을 주시해서 IT, BT, NT, CT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특성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총장에게 듣는다

를 기른다. 열린 마음의 연세인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화, 정보화, 특성화 방침을 확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는 인화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가화만 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인화를 이룰 때 각 개인의 힘이 다소 미약해도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로 모여져 놀라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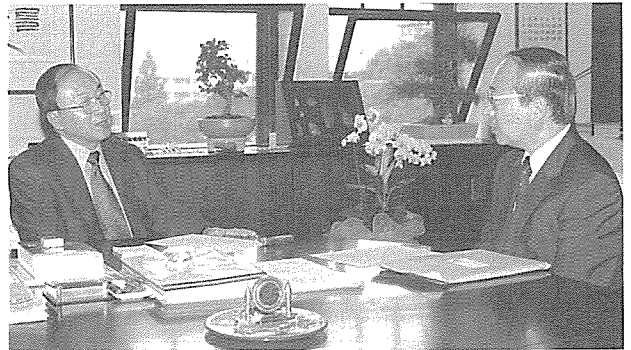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는 21세기를 대비해서 특성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과학기술분야의 특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세대학교에는 현재 18개 대학에 18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다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특성화 계획입니다. 특성화 계획 가운데 이공계통은 우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교책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일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이라 해도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세계적 흐름을 주시해서 IT, BT, NT, CT(clean technology)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술단을 이미 구성했고 독립된 2천5백평 규모의 첨단기술연구센터와 9백평의 IT센터 독립건물을 곧 착공하게 됩니다. 첨단기술연구센터 건물들이 마련되면 4개 분야의 연구인력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연구가 한층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특성화계획 매년 연구비 1백억 투자

의학계통은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전문병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암센터도 그렇지만 심장혈관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재활의학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을 더욱 전문적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 전문병원이 핵심이 되어 전체가 합쳐 최고의 의료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특성화 계획 수행을 위한 연구비로 매년 1백억씩 몇 년간 집중투자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공인임상시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캠퍼스를 의공학분야 특히 첨단의료기술개발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8월 '의용기기산업기술연구센터' 등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金雨植 연세대총장(왼쪽)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인해서 기초과학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학의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대학을 너무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시대의 인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입학할 때 모든 학과의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학과단위로 뽑고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단위학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은 1999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대학이 담당해야 할 몫과 산·학·연 협동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학·연 협동관계는 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93년부터 공대 학장을 맡아 연세공학원을 건설할 때의 꿈은 산업계가 공학원에 입주해서 대학의 연구인력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우수 두뇌를 산업계가 갖고 있는 재력과 시설 및 기술력과 접목시켜 나갈 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산업계가 대학과 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하게 될 때 대학의 경우 대학원 학생들의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들은 후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확보에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학·연 협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의 확보입니다. 산·학·연 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

려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마치 대학에 큰 은혜나 베푸는 것 같이 한다면 대학에서는 논문을 위한 지엽적 연구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신뢰가 구축될 수 없습니다. 산·학·연 협동은 쌍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을 선별,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들에게 늘 '연구비부터 따놓고 보자는 연구는 하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총장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압니다. 화학공학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1957년 입학 당시만 해도 화학공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학과였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좀 막연하나마 인기가 높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일 것으로 알고 택했습니다. 무엇인가 사회에 크게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었지요.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과학기술과 인문과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의 특징은 경쟁과 협력입니다. 경쟁과 협력을 같이 잘 조화해 갈 수 있어야만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곧 과학기술력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과학의 생활화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책에선가 과학기술인을 한쪽 시각만을 갖는 외눈박이로 비유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한 분야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전경

하다보니 그것이 다인 양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발전을 더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도 경제와 경영에서 철학·문학 등 인문과 사회과학쪽 학문이 접목될 때 발전이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문과 사회과학 등 분야의 학문을 접목해 나갈 때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학문간 접목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과학기술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자가 인문사회계열의 사람보다 경시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인 인식은 물론 정치와 경제권에서마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과학기술분야가 빠져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임과 긍지로 성과 창출해야

그러나 저는 과학기술자들이 먼저 열린 마음, 적극적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들 스스로가 '과학기술 중심의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핵심이다'라는 책임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과학기술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을 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이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해야 합니다. ⑮